

## 부분층 피부 화상치료에 있어서의 인공합성재료와 항생제 연고 도포와의 유용성 비교

하슬기, 김정완, 조민창, 김미영, 허 준\*, 김종현\*, 박윤규\*

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교실, \*일반외과학교실

**연구배경:** 화상은 일차진료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이중 대부분은 부분층 피부화상이고 치료는 고식적인 항생제연고 도포와 인공대용물을 사용한 치료로 나뉜다. 저자들은 항생제 연고중 하나인 Silvadene(silver sulfadiazine)도포와 인공합성재료의 하나인 DuoDERM 을 이용한 치료의 유용성을 비교하여 부분층 피부 화상의 일차적인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방법:** 2002년 5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개 종합병원 화상클리닉에 내원한 초진 환자중 신체 표면 5% 미만의 부분층 피부결손환자 46명을 항생제연고 도포군과 인공합성재료군으로 나누어 치료 기간, 드레싱에 걸리는 시간, 드레싱의 교체 횟수, 통증정도, 활동제한, 드레싱부위의 가려움, 편안함과 미용상 만족, 수면장애등을 조사하였다.

**결과:** 화상의 원인으로는 열탕화상이 가장 많았으며(21예), 인공합성재료를 이용한 경우가 항생제 연고를 도포한 경우보다 드레싱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(4.13분 대 6.26분) 드레싱 교체 횟수도 적었다(3.19회 대 5.36회)( $P<0.01$ ). 그러나 총 치료기간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( $P=0.197$ ) 화상의 범위 정도가 치료기간에 영향을 미쳤다( $P=0.005$ ). 총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레싱 교체 횟수였다( $P=0.000$ ).

**결론:** 화상의 치료 방법이 총 치료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인공합성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드레싱 교체 횟수가 적고 총 치료비도 적었다.

**중심단어:** 화상, 인공합성재료, 항생제 연고 도포